

##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출2:23-25

일상을 떠나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한두 주 지나서 빌립보서 강해 마무리 여행 중에 관찰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대다수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진리가 무언지 모르고 살아간다.

지식, 명예, 권력, 부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 우쭐대며 기고만장해서 다 아는 것처럼 살고 있다.

한 마디로 진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하다.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다.

대언자 예레미야의 말(렘5:1),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5:31), 문제 간절함이 없다.

여러분은 간절한 부르짖음을 아는가? 성경은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국가, 교회, 성경, 목회, 구원, 질병, 여러 고통, 문제, 간절히 부르짖는 것

### 이집트 탈출의 원리

성경에서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을 읽어야 한다.

구약성경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곳: 출애굽기, 이집트 탈출

이집트: 속박의 집, 쇠 용광로, 연단의 장소, 죄의 장소, 마귀가 지배하는 곳, 세상 상징

출애굽기: 죄에 빠진 사람, 고통에 빠진 사람,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

BC 2000년경, 홍수 이후 인류 구속의 시작, 아브라함 선택, 유대인 민족 형성

야곱과 그의 가족 70여 명이 이집트로 내려감: 아무것도 모름, 그저 기근을 피해 살기 위해 내려감  
처음에는 요셉으로 인해 좋은 대우를 받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 발생, 출1:7-10

그 결과 이집트 사람들을 그들을 속박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 줌(14)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불어남, 그 결과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22).

말 그대로 숨을 쉬며 이집트 땅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됨,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남

2장: 모세가 자기 힘으로 백성을 구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감

이제 사방을 둘러봐도 이스라엘을 구출할 방도가 없음

바로 이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한다(2:23-25).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로 올라옴(23),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심(24-25), 이로써 이스라엘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함, 이것이 순서이다.

성경을 보면 오늘 이야기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에서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모세, 다윗, 사사기, 열왕기 상하

롬15:4,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받는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한다.

### 하나님의 방법

에스겔서 36:36-38, 재림의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와서 회복되는 일(36)

그럼에도 그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37). 그래서 스가랴서 12, 13장의 회개와 기도

하나님이 인간 개개인의 역사,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 역사를 쥐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

그럼에도 인간의 책임이 있다. 문제를 직시하고 회개할 것 하고 부르짖어야 한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심지어 사라를 대적하는 하갈도 살려주심(창16:6-12).

이삭의 대적자가 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창21:12-21). 16절을 보라.

사약하기로 유명했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매 하나님이 용서하심(욘 3:5-6, 10)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특권: 인생의 악한 때, 어려운 때를 만나면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히4:15-16)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 국가

미국에 가서도 늘 국가가 걱정되었다. 더욱이 2월 27-28일에는 자유 한국당 대표, 미북 회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 가슴 조리고 기도, 간간히 뉴스 시청 무너져 가는 이 나라 지켜만 볼 것인가?(2월 27일),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 나라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고 국방이 무너지고 국가전체가 폐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지금 70년 동안 피땀 흘려 이룩한 나라가 불과 2년도 안되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다.

멀쩡하게 가동되던 세계 최우수 원전을 없애겠다고 전국에 마구잡이 태양광건설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하더니, 홍수와 가뭄을 막아오던 4대강 보를 이념의 잣대로 허물고 있으며, 집권당의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 24조원이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마구잡이로 결정되자 여기저기서 예산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다.

70년 자주국방이 무너지고 있다. 휴전선에 GOP를 없애고 철책을 끊어내더니 대통령이란 사람이 장병들의 평일 외출을 허용하고, 여자 친구에게 휴대폰 전화하라고 독려하더니 급기야는 군기 위반자를 처벌하는 영창조차 없앤다고 한다. 북한은 우방이고, 미국과 일본이 적이라고 세뇌당하고 있다. 어디를 봐도 군인의 모습은 보이질 않는다.

국민의 25%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대선공약이라며 최저임금을 연2년 동안 30%나 올리고 주휴수당 까지 강제함으로써, 시간당 월1만원을 지급해야만 한다. 편의점, 음식점, 의류점, 숙박업이 문을 닫아 종사자들이 해고되자 중산층은 사라지고 서민층은 더욱 궁핍해졌다.

대기업은 어떤가. 삼성그룹 총수를 사법부에 옹아메고 겁주고 북한에 데려가 김정은 하수인에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 갑니까”라는 모멸감을 당하게 하더니,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을 김정은 의 정치 쇼 장으로 만든다고 한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삼성과 대기업 죽이는 법률만 30개 이상 대기 중에 있다 한다.

군산, 울산, 거제, 창원등 지방의 산업단지가 무너져 지역경제가 죽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먹거리 수출주력 품목 반도체가 무너지는데도 정부는 지원은커녕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부동산은 있는 자를 조져야 한다며 세금으로 맹폭하여 거래조차 못하게 만들었다.

정치는 최악이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일자리예산 54조원 행방, 손혜원 투기와 뒷 배경, 각 부처의 블랙리스트, 청와대 특감반원의 민간인 사찰, 대통령 딸의 태국 이주 의혹, 허위 국가유공자 양산, 신재민, 김태우 고발사건, 손석희의 배임 미수에 이르기까지. 어디를 봐도 울화통 터지고, 민초들의 화(火)와 분노만 키우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 어느 한 군데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없다. 좌파 정권 2년도 안 되어 나라 곳곳이 속속들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가고, 포퓰리즘 선심정책으로 공산주의로 급속히 진행되는 데도 이 백성 차별력조차 마비되어 이제는 체념이 습관처럼 돼버렸다. 정말 호세아 4장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는 말씀이 지금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건국한 나라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박정희 대통령과 선진들. 우리 배고픈 세대들이 일구어낸 세계 10대 강국이 된 나라다.

누가 그랬다. 좌파는 뻔뻔스럽고 우파는 비겁하다고. 좌파들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자기 고집대로 더 밀어붙이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이들은 힘없는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다. 집권당 대표는 앞으로 20년 집권, 50년 집권, 엇그제는 좌파 100년 집권론까지 들먹이며 국민들을 약 올리고 있다.

우파들은 정말 비겁한 것인가. 설마 나라가 없어지겠느냐며 방관하고 있는 사이 이 땅은 야금야금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 병원진단서에서 무서운 것은 병명이 아니라 너무 늦었다는 의사의 소견이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이사야 56장 "파수꾼들은 다 눈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며, 말 못하고

짓지 못하는 개'라는 말씀을 되새겨야 한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메시아 왕국을 배출한 위대한 다윗 왕 말기에도 원인모를 3년 가뭄이 들었다. 결국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때에 기브온 백성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사울이 기브온 백성을 탄압한데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어서 죄악은 눈 뜨고 보지 못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분이시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기까지 자기 배만 채워왔고,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았다. 과부와 고아, 집 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다. 이런 사악한 무리들이 날뛰는 것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영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 본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이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가슴속에 분노와 화만 키울게 아니라 행동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좌파 독재를 과감히 척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행동으로 저항해야 한다. 나도 이번 삼일절에는 초딩 친구와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기로 했다. 나서서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 아닌가.

-----  
읽으며 간절함으로 기도

27일 황교안 대표 선출: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과 법치주의를 믿는다. 최선의 선택 감사  
27일 북미 회담 시작되었다는 소식,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비행기 탑승,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는 시간이 28일 오후 4시, 핸드폰을 켜니 미북 회담 결렬 소식, 얼마나 기쁘던지! 안도의 숨을 쉬,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트럼프의 핵협상 거부로 구사일생, 남북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이 이제 소멸될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심  
핵협상은 처음부터 사기요, 거짓말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주한 미군철수 요구,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 이번에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거짓이 명백하게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북한은 절대 비핵화하지 않는다. 영변 말고도 다른 핵시설이 있다. 한국 정부는 이것을 알고도 북한에 퍼주려 한다.

뉴욕타임즈 분석: 2월 28일, 제목: 남한 지도자에게 트럼프/김정은 협상 결렬은 놀랄 만한 좌절, 핵심  
트럼프 김정은 회담의 결렬로 인해 가장 크게 놀라고 낙담한 사람은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하노이 회담이 큰 돌파구를 열 것으로 확신하고 목요일 회담 후 즉시 금요일에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을 위한 대담한 구상(bold vision)을 내놓을 연설을 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회담 결렬로 인해 그의 꿈은 크게 좌절되었다. 문 정부는 이 와중에 실 같은 희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번 회담 결렬은 특히 문 대통령에게 뼈아픈 일이었다. 만일 트럼프와 김정은이 2017년으로 되돌아가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대립하면 문 대통령은 다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경제 파탄으로 인해 국민들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문 대통령은 오직 북한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인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너무나 긍정적이고 또 천진난만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과장되게 말한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자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대통령이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들을 속여 왔다고 비판하였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 그는 지칠 줄 모르고 트럼프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 하니 회담을 하고 경제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설득해 왔다.

최근에 미국의 최고위 정보 담당자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가 자기 정권 유지에 핵심이기에 여전히 긍정적인 견해를 펼쳐 왔다.

-----  
3월 1일 서울 애국 집회 참석(100여 명의 성도들 참석), 회담 결렬 이후 자신감을 얻은 국민들이 말 그대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나와 문재인 정권 회개를 외치며 평화적으로 거리 행진

이제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하였다. 진실이 이긴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쟁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 치하에서 속박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다. 대한민국에 좋은 지도자, 남북한 평화 통일, 자유, 복음 선포의 기회  
끝이 아니다. 북한이 끝장나도록 더욱 기도해야 한다.

#### 교회

미국에 가서 아이들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며 걱정이 태산 같다.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다닐 만한 교회가 많지 않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신약 교회를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성도들의 간절함이 없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대다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한다.

좋은 교회를 하려면 좋은 목사가 있어야 한다. “좋은 목사들을 주시옵소서.”  
목사들 또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한다. 독립 교회들 그나마 내 설교, 2만회  
이렇게 해서는 변화를 이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목사인 나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설교하  
려 한다. 이 나라에 좋은 목사, 성도, 교회를 주시옵소서.

#### 성경

여행을 가면서도 아이패드에서 성경 파일을 담아 가지고 가면서 어디서나 읽는다.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읽으며 교정한다. 가만히 과거 회상, 비행기 타고 다니며 그 안에서 성경 번역, 교정, 사전 번역하던 일

자, 성도들과 교회들이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다. “한국 교회가 성경 번역하나 제대로 못 하는가 통탄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이분께 미약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다고 답을 드리면서 차마 쓰지 못한 것이 있다.  
“성경 번역에도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위클리프 성경 이후 1611년 KJB 출간까지 약 230년간 간절한 마음으로 보통 사람들을 위한 성경을 내려고 불철주야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서 드디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성경 이 출간되었다. 전 세계 성경 확산”, 그러므로 위원회 같은 것 구성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죽고 사는 문제로 보고 간절한 소망을 두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

나의 간증: 지난 27년간 자나 깨나 시간만 있으면 번역/교정했다. 최선의 성경을 내려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 구원과 성화

사람이 혼을 잃으면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소용이 없다(마16:26).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이루어놓으셨다. 그런데 인간의 간절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예정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간절히 구해야 한다. 금을 찾듯 간절히 찾아야 구원받는다.  
구원 이후 성화: 마찬가지로이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 내주하신다.

그러나 내가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성화 불가능, 전도, 선교 도 마찬가지로

#### 질병과 고통과 인생의 문제

사람은 고통 가운데 태어나 고통을 겪으며 고통 가운데 죽는다(욥14:1-2).

인생은 문제 덩어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역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해결받아야 한다.  
가장 슬프고 힘든 일: 육신의 질병(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하자). 왕하 20장  
인생의 각종 어려움: 다윗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자(사무엘기, 시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자식들 문제: 특히 구원과 직업 문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롬8장을 기억하라(31-32, 3-39).